

도약의 달

믿음성장과 신앙생활 성숙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새기야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 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August 8,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찬 송 / 298장 - 속죄하신 구세주를 (통일찬송 35장)
	예배기도 / 김훈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452장 - 내 모든 소원 / 2, 3, 1절 (통일찬송 505장)
	봉 헌 / 유동숙 집사, 홍현근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찬 양 /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송 32장 - 만유의 주재 (통일찬송 32장)
	성경말씀 / 아모스 8:1-8 복 있는 사람은?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에베소서 1:23-2:7

하나님의 능력 :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8월은 “도약의 달”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 오릅니다.

-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붙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 제직회** 상반기 사역결산과 하반기 사역점검과 계획 (다음 주일 8/15)
- 방역 가이드라인** 출입과 복도, common areas 에서는 face mask 를 착용합니다. 서쪽 정문과 복도, 계단을 사용합니다.
- 자녀를 위한 기도** 개학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특히 2세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씁시다.
- 토요새벽 기도** 토요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니다.
- 사역 정상화** 예배, 성경공부, 새벽기도, Oikos 셀 사역, 중고등부 사역, 선교등 사역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새 사역지를 찾는데 힘을 모읍시다.
- 교우 동정** 흥현근/정임 집사 가정, 가족 여행

8월의 사역 - 성장과 성숙 주간(8-14) 제직회(15)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15-21) 선교 주간(22-28)
 선교 주일(29)

♥8월 생일축하♥ 최성주(16) 김신실(18) 정줄리(30)

기도 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에배기도	8/1	8/8	8/15	8/22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최선윤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8/1	8/8	8/15	8/22
	홍현근집사/유동숙집사		박진성집사/홍정임집사	
주일안내위원	8월			
	구 민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의 은혜 : 확신과 소망 / 아모스 7:1-9**

사명에 충성하며 지치고 갈등을 느꼈을 아모스는 그 어떤 헐박과 '거짓 선지자'란 오명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 그가 낙망하고 좌절할만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고, 환상들을 보여주시며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의 사역이 결코 허무하지 않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음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었다. 수고와 헌신의 열매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란 사실을 확신하고 다시 힘을 내자. 때로는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을 해야 허무하지 않으며, 구원 역사의 과정이 된다. 아모스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나라의 확장과 복음전파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와 교회에 놀랍고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충만히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은? / 아모스 8:1-8

풍요와 행복을 상징하지만 시들고 썩는 여름 과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삶

형식적인 신앙생활, 부당한 이익과 부와 힘을 악용한 불의한 저주의 삶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닌 참된 만족과 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자.

복 있는 사람은? / 아모스 8:1-8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메뚜기 떼, 불과 다림줄에 이어 이제 **여름과일 광주리 환상**을 보여 주셨다. 한 해의 마지막 추수가 여름과일 수확이었다. 그 중 포도와 무화과는 풍요와 만족을 상징했다. 그러나 아무리 맛 있어도 건조시키지 않으면, 여름과일들은 썩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름과일은 **종말을 뜻 했다**. 실제 이 두 단어는 동일 어근으로, 여름 또는 여름과일은 “카이츠”이고 종말은 “케츠”이다. 여름과일은 곧 이스라엘의 모습 이었다. 그들이 누리던 부강과 영화는 여름과일처럼 곧 끝날 것이었다. 우리는 다른가.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에 파묻혀 살지는 않나. 예컨대, 집, 차, 명품 등은 즐겁게 해주지만 여름과일과 같이 곧 그 가치나 만족도가 쉽게 변한다. 진정한 풍요와 영원한 만족은 거기에 없다. 참된 감사나 나눔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고 부를 축척하는 사람을 참회로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며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꾸짖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기억하는 월삭, 매월 첫날의 번제나 안식을 가볍게 생각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아니라 상거래가 멈추어 돈벌이가 중단돼 불편한 날이었다. 손해를 불평하며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돈 버는데 미치니 나눔과 감사를 찾을 수 없었다. 곡식의 양을 측정할 때 거짓된 저울을 사용했다. 은과 신 한 켤레로 사람을 노예로 사며,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찌꺼기 밀을 곡식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팔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거짓 저울을 미워하신다**(잠언 20:10).

부당한 이익과 범죄로 모은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무서운 저주가 된다. 이스라엘의 악행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와 심판을 마주하게 된다.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진실과 나눔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그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이웃에게 무서운 악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서 구원을 얻을 사람들을 남겨주셨고,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셨다. 우리에게도 그 남은 은혜가 있으니 감사하자.

오늘도 가진 자는 없는 사람을, 부자는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을, 권력자는 힘없는 약자를 착취한다. 사람을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한다. 부귀영화가 영원한 것처럼 줄 타고 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손해를 입더라도, 불이익과 수모를 당해도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천국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없이는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자리, 이웃을 착취하는 자리,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자리에 서게 되기 쉽다. 주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 감사하자. 그런 축복된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금새 썩을 여름과일 광주리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하나님. 기도하는데, 지쳐요.

왜 빨리 안 건져주실까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거야.’

하지만, 점점 상황은 나빠지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소망까지 사라져갑니다.

기도하지만, 힘이 없어집니다.

“...주님...”

“영영영...주님...제 기도 듣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구원의 때와, 시간을 예상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서, 이걸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 때쯤에는, 저렇게 해주실 거야.’

요셉도 노예생활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요셉이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서, 형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면 형들이 그냥 뒀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과 형들은 엄청나게 싸우고,

형들은 정말 이젠 완벽하게 죽여버리자. 했겠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 그곳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계속 돕고 계셨습니다.

학대를 피할 수 있는데도, 머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다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다 막혀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 뜻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되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미래를 알지 못하오니.

좋으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되길 구하는 기도는 그 한숨 하나도,

그 눈물 한 방울도, 그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쌓이고 있으니깐요.

구원의 시간과, 방법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합당한 기도의 분량을 쌓기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면 읊시다.
주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 드리면서 많이 읊시다.

그러나, 울면서도 계속기도하며 노력하며 씨를 뿌립시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돕고 계시니까요.

반드시, 기쁨으로 소리치며,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이 다시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시간처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까요.



이정환 작가



예레미야 33:3

“내가 내게 응답을 듣고 내가 내게 응답을 듣는 줄 앎이로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